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대응방안

정기옥 · 김호선¹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대원대학교 치위생과

Dental hygienists' perspective and coping measures towards medical market opening

Gi-Ok Jung · Ho-Sun Kim¹

Dep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¹*Dept. of Dental Hygiene, Daewon University College*

ABSTRACT

Objectives : This research seeks to present the data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coping strategy, following medical market opening by identifying dental hygienists' perspective and coping measures towards the opening.

Methods : One hundred eighty-eight dental hygienists were targeted to identify their level of perception towards medical market opening, attitude towards medical market opening, question of whether they agree or not with the opening and reasons, and coping measures and benefits of the medical market opening. t-test, chi-square test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used for the analysis

Results : First, team leaders are more aware of the medical market opening and hold greater sense of crisis towards opening compared to the rank and file. Second, the reasons cited for agreeing with the medical market opening included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quality and diversification of services. As for the reasons for disagreeing, they cited the increase medical expenses paid by public. Third, limitation of the hospital management technique was cited the most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Korean hospitals' management crisis, followed by the limitations of the diagnosis procedure, limitations of the medical services, limitations of the medical techniques an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rge hospitals, in the order cited. Fourth, team leaders perceive greater need to seek coping measures from the aspect of realizing medical insurance fee from the policy development, service and system level aspects when it comes to the coping measures depending on their ranks.

Conclusions : Therefore, Dental Hygienist has a comparatively low awareness of medical market opening, coping measures need to be explored to cope with the medical market opening by ensuring the dissemination of accurate knowledge through the education on the fees for dental hygienist and seminars in relation to the medical market opening.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3):503-511)

Keywords : coping measures, dental hygienists, medical market opening

색인 : 대응방안, 의료시장 개방, 치과위생사

1. 서론

우리나라 의료산업 분야는 WTO/FTA 등 의료시장 개방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인구 고령화와 웰빙수요 및 소득증대로 인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건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¹⁾.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경제특구 내 거주 외국인의 이용 편의 제공 및 국내 의료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허용을 의미하며,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는다²⁾. 따라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로 완전 자유경쟁이라는 세계경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³⁾.

우리나라 의료시장 개방은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 지침에 투자 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199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분야에 외국 자본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 2001년 11월 WTO DDA(doha development organization)협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보건의료서비스 협상의 최종안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다⁴⁾.

또한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가 공공적 서비스라 하여 주도해 온 보건의료 영역이 자유무역 아래에서 외국의 의료기관에 대해 높이 쌓여 있던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선진 외국의 막대한 자본과 발달된 의료기술, 경영기법을 갖춘 의료기관들이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던 의료기관에 다른 차원의 경쟁 구도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⁵⁾. 이러한 경쟁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운영과 생산의 효율성 제고 및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이를 통한 국내의료기관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의료계 분야 종사자들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인식전환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⁵⁾.

최근까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대응방

안에 관한 연구는 몇 차례 진행되어 왔다. 한⁶⁾의 연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시장개방에 관한 병원종사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고, 노⁵⁾의 연구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중소병원종사자의 의식수준을 분석 조사하였다. 박 등⁷⁾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의료산업 종사자의 경영의식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의료시장 환경에 대한 치과 의료계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이⁸⁾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지는 전체의 14.7%로,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⁹⁾의 연구에서 또한 간호사들의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았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진료팀원이나 근무경력이 낮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특히 직급별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과 견해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치과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총 200명의 자료를 수집, 부적절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188명(94.0%)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표 1).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	%
Age	<25	75	39.9
	25~29	67	35.6
	30~34	32	17.0
	≥35	14	7.4
Years of service	<1	37	19.7
	1~4	74	39.4
	5~9	48	25.5
	≥10	29	15.4
Qualification	Dental clinic	42	22.3
	Dental hospital	146	77.7
Position	Section chief level	34	18.1
	Medical team	154	81.9
Education	Technical college	156	83.0
	College or more	32	17.0
Total		188	100.0

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는 기존에 개발된 문항을 참조하였으며⁹⁾ 조사 내용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문항,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3문항,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4문항,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 6문항,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의료개방에 대한 인식 및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태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

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측정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더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p<.05$). 국민부담 의료비 부분, 의료시설 공급확대,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의료기관의 수익부분에서는 진료팀원이 실장급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2).

Table 2. Awareness of and attitude toward medical market opening

		N	M	SD	t	p
Awareness of medical market opening	Section chief level	34	3.17	.86	2.162	.032*
	Medical team	154	2.82	.85		
Medical expenses paid by public	Section chief level	34	2.47	.96	-1.545	.124
	Medical team	154	2.74	.93		
Expansion of supply of medical facilities	Section chief level	34	3.29	.79	-.480	.632
	Medical team	154	3.36	.75		
Stimulation of pharmaceutical and medical equipment industry	Section chief level	34	3.29	1.00	-.650	.516
	Medical team	154	3.38	.71		
Revenues of medical institutions	Section chief level	34	2.94	1.09	-1.746	.082
	Medical team	154	3.23	.83		

* $p<0.05$

3.2.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 및 찬반 여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위기의식에 대하여 실장급 34명 중 위기의식이 ‘있다’ 50.0%이고, ‘없다’ 23.5%였으며, ‘모르겠다’ 26.5%였다. 반면 진료팀원은 위기의식이 ‘있다’ 16.2%였고, ‘없다’ 18.8%였고, ‘모르겠다’ 64.9%였다. 실장급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진료팀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실장급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35.3%였고, 진료팀원은 ‘생각하지 않는다’ 경우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3).

3.3. 의료시장 개방 찬성집단의 순위별 이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성집단의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1순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 35.0%,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 28.3%, ‘선진의료기술 및 의료장비의 첨단화’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 30.0%,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 18.3%, ‘경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10.0%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경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 18.3%, ‘선진의료기술 및 의료장비의 첨단화’ 15.0%, ‘진료절차의 효율화’ 1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는 모든 순위에서도 찬성의 이유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Table 3. Sense of crisis and pros vs. cons on medical market opening

Variable	Yes	No	No idea	Total	χ^2	p
Sense of crisis						
Section chief level	17(50.0)	8(23.5)	9(26.5)	34(100.0)	21.633	.000***
Medical team	25(16.2)	29(18.8)	100(64.9)	154(100.0)		
Total	42(22.3)	37(19.7)	109(58.0)	188(100.0)		
Pros vs. cons						
Section chief level	12(35.3)	12(35.3)	10(29.4)	34(100.0)	.429	.807
Medical team	48(31.2)	52(33.8)	54(35.1)	154(100.0)		
Total	60(31.9)	64(34.0)	64(34.0)	188(100.0)		

*** $p < 0.001$

Table 4. Reasons for agreeing group order to medical market opening

	Agreeing group		
	First N(%)	Second N(%)	Third N(%)
Expansion of patient's options on medical service	17(28.3)	11(18.3)	3(5.0)
Maestro	3(5.0)	3(5.0)	1(1.7)
World-class reputation and reliability	—	1(1.7)	6(10.0)
Quality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medical service	21(35.0)	18(30.0)	7(11.7)
Inflow of advanced medical techniques and cutting edge medical equipment	10(16.7)	8(13.3)	9(15.0)
Management rationalizing via competition	2(3.3)	6(10.0)	11(18.3)
More efficient procedure of medical service	4(6.7)	4(6.7)	8(13.3)
Alleviation of the shortage of the medical facilities	1(1.7)	2(3.3)	2(3.3)
Advance into overseas medical market of domestic medical personnels and capital	2(3.3)	—	7(11.7)
Improvement of hospital condition and related facilities	—	2(3.3)	6(10.0)
Total	60(100.0)	60(100.0)	60(100.0)

3.4. 의료시장 개방 반대집단의 순위별 이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집단의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1순위에서는 ‘국민 의료비의 부담증가’ 26.6%, ‘중소병원의 경쟁력 상실’ 17.2%, ‘병원수익 감소’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국민 의료비의 부담증가’ 20.3%, ‘환자의 상품화 가능성’ 18.8%, ‘고가의료비 도입 경쟁 심화’ 17.2%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환자의 상품화 가능성’이 35.9%로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의료비의 부담 증가’, ‘환자의 상품화 가능성’은 모든 순위에서도 반대의 이유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3.5.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병원 경영위기 원인

국내병원 경영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다중응답으로 조사해 본 결과 ‘병원 경영기법의 한계’ 1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료 절차의 한계’ 16.9%, ‘의료 서비스의 한계’ 16.8%, ‘의료기술수준의 한계’ 12.1%, ‘대형병원의 증가’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3.6. 직급별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직급별 대응방안에 대해서 먼저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p<.05), ‘고객만족

Table 5. Reasons for disagreeing group order to medical market opening

	Disagreeing group		
	First N(%)	Second N(%)	Third N(%)
Decrease in hospital revenue	8(12.5)	1(1.6)	4(6.3)
Loss of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scale hospital	11(17.2)	7(10.9)	6(9.4)
Increased preference for high quality medical service	5(7.8)	4(6.3)	3(9.4)
Concentration of patients into certain medical facilities	6(9.4)	7(10.9)	6(9.4)
Intensified competition on introducing high priced medical equipment	6(9.4)	11(17.2)	3(4.7)
Imbalance of medical resources between regions	4(6.3)	7(10.9)	6(9.4)
Increased medical expenses paid by public	17(26.6)	13(20.3)	6(9.4)
Outflow of domestic capital	4(6.3)	2(3.1)	5(7.8)
Commercialization of patients	3(4.7)	12(18.8)	23(35.9)
Premature	—	—	2(3.1)
Total	64(100.0)	64(100.0)	64(100.0)

Table 6. Cause of crisis facing domestic hospitals to medical market opening

	N	%
Limitation in hospital management	103	18.4
Limitation in medical technique	68	12.1
Limitation in medical service	94	16.8
Shortage in specialized medical doctors	34	6.1
Shortage in medical facilities	56	10.0
Limitation in medical procedure	95	16.9
Shortage in hospital human resources	49	8.7
Increase in large scale hospital	62	11.1
Total	561	100.0

병원 마케팅의 수립'(p<.05), '병원공동 관리체계 구축'(p<.01), '의료정보시스템 구축'(p<.01), '의료시장변천에 따른 정책개발'(p<.01) 면에서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p<.01), '직원진절서

비스 교육 및 훈련'(p<.01), '병원 이미지 차별화'(p<.01), '진료예약 제도의 개선'(p<.05), '치과의사들의 의식 개혁'(p<.05) 부분에서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장급이 '국민건강보험수가 현실화'(p<.05) 면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더 필요

Table 7. Response to medical market opening by position

			N	M	SD	t	p
Aspect of management	Management rationalization	Section chief level	34	4.24	.74	2.106	.037*
		Medical team	154	3.96	.68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small and medium scale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Section chief level	34	4.06	.69	1.010	.314
		Medical team	154	3.92	.72		
	Establishment of marketing strategy for customer satisfaction	Section chief level	34	4.29	.72	2.149	.033*
		Medical team	154	3.97	.80		
	Establishment of common maintenance of hospitals	Section chief level	34	4.21	.73	2.912	.004**
		Medical team	154	3.77	.80		
	Establishment of medical information system	Section chief level	34	4.35	.69	2.924	.004**
		Medical team	154	3.95	.74		
	Development of policies in step with changes in medical market	Section chief level	34	4.29	.68	2.676	.008**
		Medical team	154	3.92	.75		
	Study on overseas medical market and advance into it	Section chief level	34	4.12	.77	1.644	.102
		Medical team	154	3.88	.75		
Aspect of service	Quality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medical serve	Section chief level	34	4.44	.61	2.673	.008**
		Medical team	154	4.08	.72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on customer oriented service	Section chief level	34	4.41	.66	3.086	.002**
		Medical team	154	3.98	.75		
	Image differentiation of hospital	Section chief level	34	4.35	.65	2.645	.009**
		Medical team	154	3.98	.76		
	Improvement of appointment system	Section chief level	34	4.38	.74	2.240	.026*
		Medical team	154	4.04	.82		
	Improvement of hospital's facilities	Section chief level	34	4.09	.71	.975	.331
		Medical team	154	3.94	.81		
	Attitude reformation of dentist	Section chief level	34	4.53	.71	2.520	.013*
		Medical team	154	4.17	.77		
	Study on patient's expectation on medical service	Section chief level	34	4.15	.70	1.128	.261
		Medical team	154	3.99	.76		
Aspect of system	Rationalization of the cos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ction chief level	34	4.26	.83	2.376	.018*
		Medical team	154	3.92	.75		
	Reduction of uninsured pay and replacement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Section chief level	34	3.74	.96	.881	.380
		Medical team	154	3.58	.89		
	Establishment of health insurance structure in which dental health care insurance covers essential health care,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s special medical care	Section chief level	34	3.76	.86	.943	.347
		Medical team	154	3.63	.73		
	freedom of contract between insurers and doctors	Section chief level	34	3.38	.70	.404	.687
		Medical team	154	3.32	.77		

* p<0.05, ** p<0.01

하다고 보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7).

4. 총괄 및 고안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환경변화는 단순히 현존하는 국내병원이 경쟁해야 할 대상이 증가한다는 것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치과 의료계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치과위생사 특히 직급별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료시장 개방 대비 치과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직급별 치과위생사의 인지 및 태도는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더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⁸⁾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은 전체의 14.7%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에 많을수록 인지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것은 치과위생사의 관심이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⁹⁾의 연구에서는 간호사들도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료팀원이나 근무경력이 낮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정보를 더욱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박 등⁷⁾에서는 의료산업 종사자들은 35.9%였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에 대하여 실장급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진료팀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실장급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35.3%였고, 진료팀원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⁸⁾는 의료시장 개방 찬성 긍정과 부정적 견해에서는 긍정적 견해는 전체의 23.3%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에서는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긍정적 견해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⁹⁾의 연구에서는 간호부에서는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찬성이 많게 나타났다. 이⁸⁾의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가

보통이다로 긍정·부정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의료계 종사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해서 함¹⁰⁾은 의료시장의 긍정적 영향 중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성이유는 1순위가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및 다양화가 35.0%, 2순위는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및 다양화가 30.0%, 3순위는 경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가 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⁸⁾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이유는 1순위가 권위 있는 진료팀으로 57.1%, 2순위는 최신 치과 의료장비가 51.4%, 3순위는 세계적인 신뢰성이 40.0%의 순으로 나타났고, 노⁹⁾의 연구에서 간호부의 찬성이유는 서비스 개선 및 다양화로 나타났다. 김 등¹¹⁾의 연구에서는 찬성이유가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 50.7%, 2순위는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및 다양화가 33.6%, 3순위는 병원 환경 및 부대시설의 개선 21.6%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이유는 1,2순위가 국민의료비의 부담증가로 각각 26.6%, 20.3%, 3순위는 환자의 상품화 가능성 35.9% 순으로 나타났다. 이⁸⁾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견해의 이유는 1위가 비싼 진료비로 74.3%, 2순위는 의료의 공공성 훼손이 33.3%, 3순위로는 의료의 상품화가 46.2%로 나타났다. 박 등⁷⁾ 연구에서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민의료비 상승이 가장 높았고, 노⁹⁾의 연구에서 간호부의 반대이유 중 의료서비스의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의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먼저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 고객만족 병원 마케팅의 수립, 병원공동관리체계 구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의료시장 변천에 따른 정책개발 면에서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훈련, 병원 이미지 차별화, 진료예약 제도의 개선, 치과의사들의 의식 개혁 부분에서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장급이 국민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면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한⁶⁾의 연구에서는 의료개방에 대한 병원인력들의 대응방안 중 병원의 추진과제별 중요성에 인지적 차이가 있었다. 병원 및 경영의 전문화, 고부가가치 서비스 개발, 경영 효율화 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 병원의 대형화, 비용절감, 의료장비 확충의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 의료규제 정책의 완화, 의료수가 현실화,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순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병원종사자들은 의료보험 및 수가와 관련한 현행 제도에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⁸⁾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원의 대응방안은 근무경력과 인지여부 및 견해에 관계없이 외국어 능력 함양이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88.0%, 진단 및 치료 기술 수준 향상이 86.0% 순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노⁹⁾의 연구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가 73.1%,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훈련이 65.5%, 의사들의 의식개혁이 64.8% 순으로 나타났고, 손¹²⁾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의료진의 언어능력 및 환자 중심의 서비스 마인드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¹³⁾에서는 상담 및 교육실무, 고객응대가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고, 특히 진료팀은 실장급보다 인지가 낮아 치과위생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적절히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화의 가속은 여러 측면에서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계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대상의 확대 및 보건계열의 병원인력과 비교분석 등의 테마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직급별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대응

방안의 필요성 정도를 분석해 보고, 치과영역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해 봄에 따라 향후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 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특히 치과영역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188명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 더 인지하고 있었으며($p=.032$),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위기의식에 대하여 실장급 34명 중 위기의식이 있는 경우가 50.0%이고, 없는 경우는 23.5%였으며, 모르겠다는 26.5%였다. 반면 진료팀원은 위기의식이 있는 경우는 16.2%였고, 없는 경우는 18.8%였고, 모르는 경우는 64.9%였다. 실장급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진료팀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둘째,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찬성집단의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다양화, 경쟁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집단의 이유를 순위별로 알아본 결과 국민 의료비의 부담증가, 환자의 상품화 가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병원 경영위기의 범위는 병원경영기법의 한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료절차의 한계, 의료서비스의 한계, 의료기술 수준한계, 대형병원의 증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직급별 대응방안에 대해서 먼저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의 합리화($p=.037$), 고객만족 병원 마케팅의 수립($p=.033$), 병원공동관리체계 구축($p=.004$), 의료정보시스템 구축($p=.004$), 의료시장 변천에 따른 정책개발($p=.008$) 면에서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측면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양화($p=.008$),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및 훈련($p=.002$), 병원 이미지 차별화($p=.009$), 진료예약제도의 개선($p=.026$), 치과의사들의 의식 개혁($p=.013$) 부문에서 실장급이 진료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장급이 국민건강보험수가 현실화($p=.018$) 면에서 대응방안 모색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

으로 다양한 의료시장 개방관련의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인식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전지식을 파악하여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경영, 서비스,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Shinho Lee, Yontaek Jung, Byeonggwon Lee, et al. Study on the enhacement of competitiveness of health&medical industry. Osong: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Health Care Policy Report 2009;7-36.
2. Inchul Lo. Problems of madical market opening and medical environment. Seoul:Health and Welfare Forum 1996;12:27-34.
3. Gitak Jung, Changjin Suh. Impact of medical market opening and reponse strategies. Trade Research 1997;1(1):105-127.
4. Youngho Jung, Sookja Go. WTO/DDA Study on negotiation issues and impact of heath care service industry. Study on international regions 2005;9(2):108-139.
5. Myunghée Lo. Response stragies of medical institutions for medical market opening [Master's thesis]. Daejeon: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Gunyang University;2005.
6. Hyunjin Han. Research on hospital personnels' perception of medical market opening[Master's thesis]. Daejeon: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Gunyang University;2004.
7. Songchan Park, Dukgu Woo, Hogeon Lyu. Study on perception of management crisis of medical personnels following market opening of medical industry. Industrial Economic Research 2006; 19(2):857-879.
8. Myunghée Lee. Study on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f opening of health care services [Master's Thesis]. Kwangju: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ience of Chosun University;2010.
9. Hyunjung Noh. Medical institutions countermeasure against the healthcare market opening[Master's Thesis]. Nonsan: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welfare of Gunyang University; 2005.
10. Yunhee Ham. A Study on the physician's perception and attitude to the health care market opening[Master's Thesis]. Seoul: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Kyunghee University; 2005.
11. Dongyeol Kim, Hyunseo Yoon, Jaehoon Ji. Perception and attitude of B city's students in dental hygienis concerning the opening of domestic medical market to oversea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Review 2010;10(8):266-273.
12. Soojin Seon.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medical tourism industry. Associaton of Civilization 2009;22:9-35.
13. Yunjung Lee. A Survey on the Demand of Education topic for the Development of Dental Hygienist Coordination System[Master's Thesis]. Kwangju:The graduate School of health sience of Chosun University;2008.